

『포폴 부』와 옥수수

우석균

(서울대 강사, 중남미문학)

1. 중앙아메리카에서의 옥수수의 중요성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을 접하는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야금술에서도 보잘 것 없는 기술 발전 단계에 머물렀고, 수송수단의 핵이라 할 수 있을 바퀴도 지니지 못했으며, 코끼리나 말, 소 같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건장한 동물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거대한 피라미드와 사원을 건축하고 유럽도시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때로는 더 웅장하고 화려하기까지 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나 하는 점이다.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서구인들은 갖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때로는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인들이나 우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라는 황당한 설들까지 해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에 대한 답은 쉽게 추론해 낼 수 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했으리라는 점이다.

대역사를 위해 노동력을 대규모로, 또 지속적으로 동원하는 일은 식량 생산이 순조로와 잉여식량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남미의 주곡물인 옥수수와 감자는 신이 내린 작물이었다. 서구의 주곡물인 밀의 경우 18세기까지도 파종량과 수확량의 비율이 1:5에

불과했으며, 정성스러운 발갈기와 거름주기가 요구되었고, 또 지력보존을 위해 이포제나 삼포제 방식으로 윤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150-163). 유럽의 기타 작물인 보리, 귀리, 호밀 등의 경우도 생산성은 비슷했다. 반면 이 글의 관심사인 옥수수의 경우 식민시대 초기의 기록에 따르면 파종량과 생산량의 비율이 1 : 70에서 1 : 150에 이르렀는 데다가 이모작이 가능하였다. 게다가 1년에 단지 50일의 노동밖에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산술적으로는 7-8일에 하루 정도만 일하면 충분했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은 식민지 시대 이전에도 유사했으리라고 여겨진다. 식민시대 이전이나 이후나 숲이나 덩굴을 태워서 얻는 마른 토양 위에서 옥수수를 경작하는 밀파(milpa) 시스템이라는 전통적인 농법이 큰 변화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은 옥수수가 거의 저절로 자라주다시피 했기에 가능했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띤다. 옥수수는 신대륙 원주민의 생존을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축을 위한 발달된 금속도구와 바퀴 그리고 가축노동력의 부재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유희노동력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¹⁾ 어쩌면 노동력이 지나치게 남아돌아서 지배자

-
- 1) 밀은 옥수수보다 더 뻥뻥이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1헥타르당 생산량은 엇비슷했다. 그러나 유럽의 삼포제 하에서는 경작지의 1/3에만 밀을 심는 것이 가능했던 반면, 옥수수는 이모작이 가능하여 농지 면적당 생산량이 더 많았을 것이다. 영양섭취의 면에서 보자면 유럽에서 삼포제와 병행된 목축은 전적으로 옥수수에 의존하는 중남미인들보다 더 나은 영양상태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의학적으로도 옥수수만을 주식으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영양결핍을 초래한다고 하니 옥수수가 결코 대단히 유익한 곡물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18세기 이전에는 일반인들의 경우 항상 영양이 결핍된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만성적인 곡물부족이 문제였다(앞의 책, 150-163). 따라서 옥수수가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이 곡물이 인간의 생존을 구대륙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옥수수의 생산성이 높아서 식량공급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1493년 콜럼부스가 구대륙에 전해 준 이 곡물이 감자와 더불어 18세기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근퇴치와 식량혁명, 그리고 인구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뒷받침 해준다(앞의 책, 221-226).

들은 평민들이 만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대역사를 수시로 일으킬 필요성까지 느꼈을지도 모른다(앞의 책, 215-8).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관계로 추위에 강한 감자를 주곡물로 했던 잉카를 비롯한 안데스 문명권과는 달리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옥수수가 차지하는 위치는 더욱 중요했다. 금세기에 들어서도 옥수수는 여전히 중요하기 그지없는 곡물이었다. 1936년의 통계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주민이 섭취하는 영양의 75%를 옥수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수치가 낙후된 지역에서는 더 높았음을 말해주고 있는데(J. Eric S. Thompson, *Historia y religión de los mayas*, 343), 현재도 시골 지역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듯 농경이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곡물이었기에 옥수수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일상생활에 널리 그 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었다. 옥수수는 신으로 숭상 받기도 하고, 길에 떨어진 옥수수를 보고도 줍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어 벌을 주어야 한다거나 옥수수를 술과 바꾸는 행위는 하늘에 대한 불경으로 가뭄을 초래한다는 민간전설도 전해진다(앞의 책, 345-352). 또 인간의 탄생과 성장도 옥수수와 상징적으로 연관시키는 민속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옥수수 위에서 자르고 이 옥수수 난알을 파종하여 얻은 수확의 일부는 신에게 바치고 나머지 아이의 음식을 만들어 주고, 아이가 클 때까지의 식량도 탯줄을 자를 때 피를 묻힌 옥수수 종자에서 나온 수확으로 충당함으로써 옥수수와 사람이 일체감을 느끼게 만드는 풍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앞의 책, 343-4). 옥수수는 사후세계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마야 전성기의 도시, 팔렌케(Palenque) 수장의 묘석에는 옥수수가 부활의 염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등장한다(Alberto Ruz Lhuillier, *La civilización de los antiguos mayas*, 91). 그리고 근대에 접어들어서도 옥수수는 색다른 상징적 역할을 하여 중앙아메리카에서의 옥수수의 의미를 새삼 일깨워준다. 멕시코 독립후 19세기 동안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대립 속에서 전자는 타코 같은 옥수수 위주의 토속음식을, 후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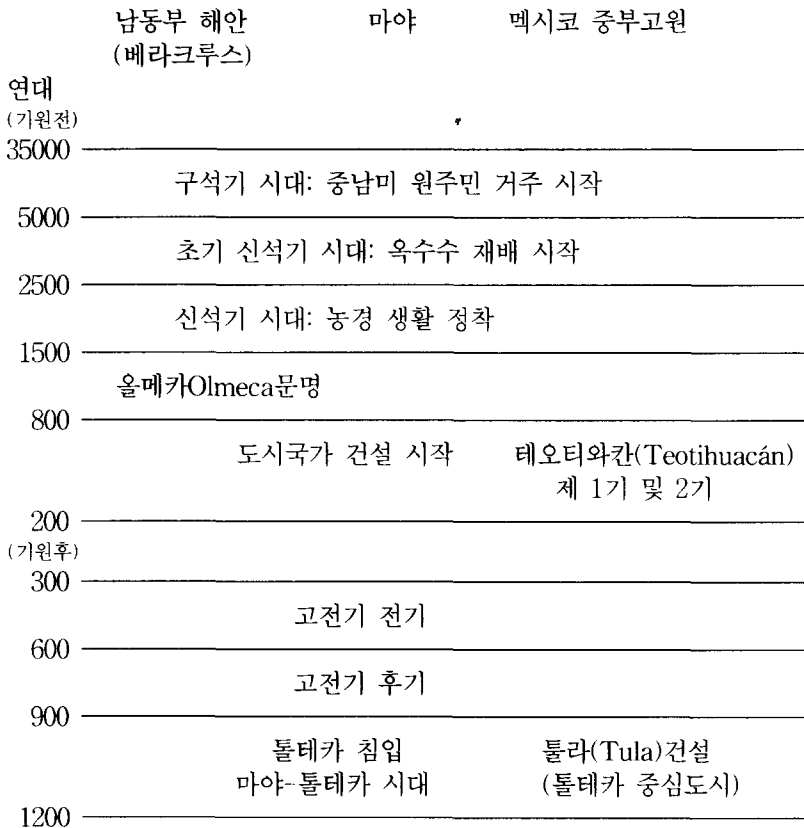
밀가루 음식을 선호하여 작물에 따라 정치색이 나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던 것이다(우덕룡, 『멕시코의 식관습과 음식문화』, 294-5).

옥수수는 신화에도 그 자취를 확연히 남겼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생존 그리고 거대한 문명을 가능케 해준 곡물로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전설과 민담에도 다채롭게 등장하고, 독특한 민속을 낳았으며, 때로는 정치색의 상징이 되기도 했을 만큼 중앙아메리카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옥수수이니, 한 사회나 민족의 의식구조가 함축되어 있는 신화에도 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었으리라. 마야문명권에 속하는 마야-키체(Quiché)족의 성스러운 경전인 『포폴 부Popol Vuh』에도 여러 대목에 걸쳐 옥수수에 관한 언급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글의 목표는 바로 『포폴 부』에 나타난 옥수수의 신화소를 추적하는 일이다. 마야-키체족의 신화에 함축된 옥수수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지는 옥수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마야-키체족과 『포폴 부』에 대하여

마야문명 유적지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 중앙아메리카의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마야는 아즈텍이나 잉카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도시국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상이한 요소들이 많이 발견된다. 마야문명에 속하는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언어, 달력, 상형문자, 건축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José Alcina Franch, *Arte precolombino*, Vol.I, 125-6). 마야는, 멕시코 남동부 해안에서 일어나 중앙아메리카 최초의 도시문화와 농경생활을 선보였던 올메카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북으로 현재의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한 제부족들과도 적지 않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마야 전성기를 고전기라고 칭하는데 -이 명칭은 서구식 시대구분에서 유

래하였다. 전기 고전기(서기 300-600)와 후기 고전기(600-900)로 나눈다. 10세기경부터는 멕시코 중부 고원지대에서 일어난 톨테카(Tolteca)라는 부족에게 침략 당하여,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 지배하에 들어 갔지만, 아즈텍에게 복속되어 완전히 쇠락하기 전까지 과거의 찬란한 마야문명의 맥을 잇는 도시들이 존재하였다. 키체족은 스페인인들이 도래한 후까지도 명맥을 유지한 마야문명의 한 부족으로 과테말라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 전해지는 『포폴 부』는 식민지 시대에 접어들어 대략 16세기 중엽에 키체족의 한 원주민이 라틴어 알파벳을 차용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특히 뒷부분- 몇 사람의 다른 기록자들이 존재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자아내며, 이들이 전승된 것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했을 가능성도 있다(Luis Cardoza Aragón, *Guatemala: las líneas de su mano*, 163-4). 문자화되기 전까지 『포폴 부』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림책의 형태로 마야시대부터 이미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텍스트에 적혀 있다(『포폴 부』, 198). 18세기초에 과테말라에서 사제로 있었던 프란시스코 데 히메네스(Francisco de Ximénez(혹은 프란시스코 히메네스(Francisco Jiménez)가 처음으로 『포폴 부』의 존재를 알게 되어 1721년에 스페인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책으로 출판되어 널리 알려진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이다. 『포폴 부』의 한 대목은 책제목이 뜻하는 바를 말해주고 있는데, ‘포폴’은 공동체(Comunidad), ‘부’는 책을 의미한다. 즉 ‘공동체의 책’(Libro de la Comunidad)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포폴 부』, 198).

『포폴 부』를 마야의 성경이라고도 일컫는데 천지창조나 대홍수 등 성경과 유사한 일화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프란시스코 데 히메네스는 서구인들이 마야문화에 대해 무지한 탓에 빚어진 착각이라고 주장하며 양자의 유사성을 부인한다(Francisco de Ximénez, 『포폴 부』 서문, 재인용, 12).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대체로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첫번째 주제는 세계와 인간의 창조신화에, 두번째는 신화 속의 반신반인들의 모험과 사악한 정령들과의 싸움을 다루는 영웅서사시에, 세번째 주제는 키체족 창건신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두 주제는 대체로 마야 전체에 해당하는 신화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마지막 주제는 키체족 고유의 신화라고 볼 수 있겠다.

3. 『포폴 부』 속의 절대자 찾기와 옥수수

『포폴 부』의 몇몇 일화에서 옥수수의 중요성을 읽어내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메리카에서 옥수수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텍스트 전체적으로 보아 『포폴 부』의 옥수수의 비중은 웬지 왜소해 보여 몇 가지 의문을 품게 된다. 첫 째로, 『포폴 부』는 우주를 창조한 신과 창조과정, 특히 우나푸(Hunahpú)와 익스발랑케(Ixbalanqué)의 모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뿐 옥수수에 얹힌 대목은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옥수수에 얹힌 일화들이 수미일관적으로 전개되는 법이 없이, 파편적으로 여기저기서 진술된다. 둘 째로는, 옥수수신이 텍스트에 부재한다는 점이다. 옥수수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신의 은총을 이 땅에 퍼뜨렸다는 신화가(Rafael Girard, *Esoterismo del Popol-Vuh*, 231) 마야뿐만 아니라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문화권에도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문의 소지를 남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일이지만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옥수수로 재료를 삼았다는 사실이다. 즉 옥수수는 신과 동일시되지 않고 인간과 동일시되고 있다. 인간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서 옥수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포폴 부』의 두번째 주제인 지하세계의 정령들과의 싸움에서 나타난 옥수수 상징의 추이와 연관시켜 본다면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 모험에서 우나푸와 익스발랑케가 옥수수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데,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적 과업을 이룩한 두 사람만이 하늘로 승천하여 해와 달의 신이 되고, 옥수수는 지상에 남는다. 결국 옥수수인간 창조에서나 이 대목에서 옥수수는 신의 지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다면 1장에서 살펴 본 옥수수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과 『포폴 부』 속의 ‘상대적 왜소함’이라는 대비되는 모순이 생겨난 셈이다.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모순이냐는 질문을 던져보고 검증해 볼 필요

성이 있다. 다시 말해 『포폴 부』에서의 옥수수의 ‘상대적 왜소함’이 옥수수가 마야문화와 신화에서 차지하는 참위상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화는 그 특성상 표상체계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다.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싶은 점은 파편적인 일화들에 대한 각각의 의미찾기를 통해 옥수수의 중요성을 논하기보다는, 옥수수가 신화체계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기능하고 작동하는가를 고찰하고, 또 근본적으로 어떤 목표로 수렴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미리 결론을 짓는다면 『포폴 부』의 옥수수의 의미는 ‘절대자 찾기’라는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다신교를 바탕으로 하는 마야문명 속에서 절대자를 논한다는 것이 일견 모순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절대자를 거론한다고 해서 곧 유일신을 지니고 있는 종교나 신화체계를 상상할 필요는 없다. 인류의 보편적 속성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심급(審級)에 대한 끊임없는 상상을 부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이 지적하는 대로 절대자는 이름과 형상 너머에 있는 ‘무엇’으로, 언어로 지칭할 수도 없고 사유로 개념지어질 수도 없는 존재이다. 절대자는 단지 하나뿐인데 인간들이 절대자를 지칭하기 위해 여러 개념과 언표를 만들어 낸다. 신에 관한 기본적인 신화적 관념이 영원이라는 캠벨의 말은 사람들이 언어, 개념, 종교 의식을 통해서 형상화하는 신들은 ‘영원’이라는 절대성을 향한 희망이 표현된 것에 불과하지 초월적 심급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조셉 캠벨, 『신화의 힘』, 107-8). 결국 어떠한 신화나 종교체계도 영원성이나 절대자를 찾는 일로 귀결된다.

절대자를 향한 염원은 수많은 신화적 모티프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 걸쳐 보편적인 일련의 상징들이 있다. 신화적 이미지나 모티프 같은 의식적 표현 아래에 잠복해 있는 무의식에 녹아 있으며, 마치 본능처럼 작동하는 이런 보편적인 상징들을 묶은 집단적 무의식 혹은 원형(原

型, archetype)이라 부른다(칼 구스타브 융, 『사람과 상징』, 76-7). 절대자 찾기는 『포폴 부』에도 여러 가지 방식, 다양한 원형들을 통해 표출된다. 그 중에서도 옥수수로 상징되는 몇 가지 원형이 있어서, 절대자 찾기에 있어서 옥수수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옥수수가 창출하는 원형적 이미지들은 옥수수가 절대자에 이르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절대자를 재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상생활에서의 ‘절대적 비중’과 모순되는 『포폴 부』의 ‘상대적 왜소함’은 텍스트의 표상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신화읽기를 뒷받침 해주는 옥수수를 통한 절대자 찾기가 야기한 원형들은 우주의 축, 세계목, 육화(肉化)이다.

3.1. ‘우리 집의 중심’ 옥수수: 우주의 축(axis mun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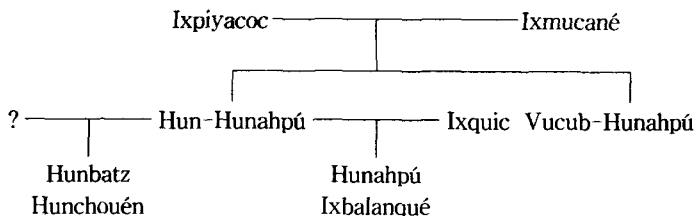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적 무의식의 하나는 ‘중심’에 대한 갈망이다. 이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거주지가 곧 절대자가 거하는 곳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유된다. 거주지와 배꼽의 동일시는 - 세계의 배꼽을 뜻하는 잉카의 수도 쿠스코(Cuzco)의 예에서처럼- 중심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우주의 축(axis mundi)이라는 원형적 표현이다. 특히 거주지 외의 공간에 대해 무지했던 전통적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거주 지역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사이에 중심/변방의 대립구도를 상징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코스모스와 카오스의 대립구도이다. 자신들이 살고 있기에 익히 잘 알고 있는 공간은 질서가 잡힌 우주, 즉 코스모스이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미지의 공간은 무정형 혹은 무질서 상태의 카오스로 간주한다. 결국 거주지를 정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들어내는 태초의 천지창조를 재현하는 셈이다(M. 엘리야데, 『성과 속: 종교의 본질』, 27-43).

『포폴 부』의 옥수수는 우주의 축이라는 원형적 상징을 통해 절대자 찾기의 염원을 표출하는 기제가 된다. 이는 『포폴 부』의 두번째 주제인 우나푸와 익스발랑케의 모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²⁾ 둘은 지하세계 정령

들의 부름을 받고 이들과 겨루러 떠나기전 옥수수를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익스무카네에게 알려준다. 옥수수가 시들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것이고, 생기가 있으면 무사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우나푸와 익스발랑케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때마다 옥수수는 시들어 갔고 그러다가 또다시 싹을 틔우고는 했다. 익스무카네는 세번째 싹이 돋아나자 옥수수에 경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옥수수를 “우리 집의 중심”(“el centro de nuestra casa”)이라 부르고, 중심중의 중심을 “살아 있는 대지”(“tierra viva”)라 칭한다(『포폴 부』, 128-9). 옥수수가 세계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옥수수가 일종의 초월적 심급으로서 작동하여 만물의 근원이 시작되는 태초의 순간에 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세계 창조는 우주의 중심인 옥수수로 재현되고 있다는 신화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마야어로 옥수수(išin)와 중심(inšin)의 어원이 유사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afael Girard, 154).

우나푸와 익스발랑케의 모험 이전에 옥수수는 사실상 우주의 축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은 지하세계 히발바(Xibalbá)의 사악한 정령들이 죽인 운-우나푸(Hun-Hunahpú)가 화한 나무의 수액을 통해 익스킵(Ixquic)에게 잉태되어 태어난다. 익스킵은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히발바 정령들의 영을 어겼기에 죽음에 처해질 운명이었으나 지상으로 도망쳐 운-우나푸의 어머니인 익스무카네(Ixmucané)의 집을 찾아간다. 익스무카네는 익스킵이 자신의 손을 잉태

- 2) 논지전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나푸와 익스발랑케의 다음 가계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하게 된다. 신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통과제의(通過祭儀)이다. 익스키는 옥수수로 그물을 만들고 여기에 익스무카네를 봉양할 옥수수를 채워 넣는 시험을 거치고 며느리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익스키의 정당성 획득과 유사한 통과제의가 우나푸와 익스발랑케에게도 주어진다. 이복형제인 운바츠(Hunbatz)와 운초웬(Hunchouén), 그리고 할머니인 익스무카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하고 뺨박받던 둘은 이복형제들을 원숭이로 만들고, 슬퍼하는 할머니 익스무카네에게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옥수수밭에 나가 할머니를 봉양하겠노라고 선언한다. 옥수수밭을 담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익스키이 겪은 것과 유사한 통과제의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옥수수밭은 둘에게 시련을 안겨 준다. 밤마다 짐승들이 밭을 망쳐 놓았기 때문이다. 우나푸와 익스발랑케는 이들을 물리치고 옥수수밭을 지킴으로써 통과제의는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집안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시련-극복-재탄생의 영웅신화적 구도가 옥수수를 매개로 익스키와 두 자식에게 공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나푸와 익스발랑케가 지하세계에서의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옥수수가 선험적 정당성을 띤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옥수수가 선험적 정당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과 우주의 축으로서의 옥수수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우주의 축이 된다는 것이 태초의 신성함을 재현하는 행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태초를 논하는 신화는 한 번 이야기되면 명백한 진리가 되는 선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엘리아데, 84-5). 절대자는 한 신화체계의 정점을 이루는 존재로서 항상 옳을 수밖에 없는, 즉 선험적(a priori)으로 정당성, 진리, 윤리성을 지닌 존재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옥수수가 선험적 정당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곧 옥수수가 우주의 중심적 축으로서 절대자처럼 기능하게 되는 우나푸와 익스발랑케의 모험 이후의 상황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2. 근원예의 향수와 세계목(universalis columna)

어느 종교나 신화에서든 태초에는 절대자가 하나이지만, 세계 창조가 수행되면서 일련의 분리가 시작된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물에서 대지가 떨어져 나오고,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는 등의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주의 창조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근원과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서 근원예의 향수가 생겨나게 된다. 멀어진 근원에 다시금 가까워지려는 것이 바로 절대자 혹은 영원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속성이리라. 근원예의 향수는 분리된 세계를 잇는 여러 가지 모티프들을 야기한다(조셉 캠벨, 115-6). 이 모티프들은 대부분 분리된 세계를 잇는 우주적 성격의 기동인 세계목이라는 원형에서 파생된 변형이다.

『포폴 부』의 시작을 보자. 분리의 모티프가 잘 나타난다. 모든 것이 정지해 있고, 정적에 싸여 있으며, 비어 있는데, 단지 창조주(Creator o Formador)만이 거기에 있었다고 적고 있다(『포폴 부』, 17). 이 창조주 이후에 등장하는, 그러면서도 거의 창조주처럼 창조의 역할을 맡는 ‘하늘의 심장’(Corazón del Cielo)과 ‘대지의 심장’(Corazón de la Tierra)의 존재는 분리된 세계라는 이미지의 태동이다.³⁾ 이런 분리 현상은 인간들의 창조가 진행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포폴 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양상은 단순히 태초에서 벗어나 땅, 하늘, 바다 등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물리적인 차원에서만은 아니다. 절대자의 가치가 심각하게 도전 받는 양상, 다시 말해 지상이 하늘의 뜻에서 분리, 이탈되는 양상이 전개된다. 『포폴 부』의 신들이 인간 창조에서 실패를 거듭하여 아직 옥수수인간 같은 완

3) 마야, 아즈텍, 잉카신화에는 특이하게도 신들이 흔히 쌍을 지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남성과 여성이 짝을 이루든지, 두 형제가 짝을 이루어 등장한다든지 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하늘의 심장’과 ‘땅의 심장’을 창조주(Creator o Formador)가 분리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절대자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포폴 부』에서는 두 신이 등장하면서 태초의 무정형과 무질서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리되는 일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포폴 부』, 17-9).

벽한 피조물이 없었을 때 지상과 지하세계는 온갖 사악한 존재들과 정령들로 가득차 간다. 지상에는 신을 자처하는 오만한 부쿵 카킵스(Vucub-Caquix) 같은 존재가 등장하고, 지하세계 히발바를 다스리는 정령들은 지상의 존재들에게까지 사악한 힘을 뻗쳐 하늘을 노하게 한다. 이럴 때 근원의 향수는 절박해진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우나푸와 익스발랑케이다. 둘은 사악한 정령들을 물리치고 하늘로 승천하여 태양과 달의 신이 되는, 전형적인 출발-시련-성취-귀환의 영웅신화적 구도의 주인공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성취한 것은 개인적인 영웅행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을 띤다. 하늘의 뜻을 지하세계에 구현했고, 지상을 히발바 정령들의 사악함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늘에 귀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늘-대지-지하를 잇는 역할을 수행하여 분리상태에서 근원의 합일상태로의 회귀를 이룩한 것이다. 옥수수는 바로 근원으로 회귀하는 두 사람의 분신이었다. 그렇지만 지하에 뿌리를 두고 하늘로 상승하는 옥수수는 절대자 찾기가 야기한 원형적 상징인 세계목의 이미지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수수 자체가 이미 근원으로의 회귀, 즉 절대성의 재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옥수수는 단순히 영웅들의 분신이 아니라 적어도 태양과 달의 신이 되어 근원으로의 회귀를 이룩한 우나푸와 익스발랑케만큼이나 신성을 갖춘 존재이다. 아니 어쩌면 절대자를 재현시키는 원형인 세계목 옥수수의 본성이 두 영웅의 모험담을 통해 발화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언제나 지하-지상-하늘을 잇고 있는 옥수수의 변치 않는 모습이야말로 우주의 분리가 일어나기 이전의 태초, 즉 절대자 그 자체가 기 때문이다.

3.3. 육화(肉化)된 옥수수

『포폴 부』에서의 옥수수인간의 창조과정을 보자. 네 마리의 동물이 노란 색과 하얀 색 옥수수의 존재를 알려 주자, 창조주들은 익스무카네로 하여금 옥수수를 갈아 아홉 가지 마실 것을 만들게 하였다. 이 음료수들

과 옥수수 반죽을 이용하여 마침내는 오늘날 인간의 조상인 옥수수인간을 만들어 낸다. 이 대목만으로 창조주와 옥수수의 관계를 보면 옥수수를 절대자의 위치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모순일지도 모른다. 창조주가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인간을 창조했으니 옥수수는 인간과 동일시될 수는 있어도 신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변체설(變體設, transubstantiation)의 경우를 보자. 예수를 통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상에 현현하고,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여기라는 계시가 말하는 바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동일성, 더 나아가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식물의 세계 사이의 동일성이 절대자를 갈구하는 인간들의 원형적 상상의 중요한 표현임을 일깨워준다(N. 프라이, 『비평의 해부』, 193-201). 물론 조셉 캠벨이 지적하는 대로 기독교처럼 신인 동형동성(神人同形同性)적 유일신을 상정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언급되고 개념화되기 이전의 존재로서의 초월적 절대자’라는 정의와는 모순되는 것이다(조셉 캠벨, 131). 그러나 이는 절대자가 정의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이지, 절대자를 몸 속에, 거주 공간에, 살고 있는 지역에 현현시키려는 근원예의 향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신과 인간계, 동물계, 식물계 모두를 일체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절대자의 존재를 스스로 체험하고 내재화시키려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포폴 부』에서 이 일체화의 과정은 토템신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잘 나타난다. 토템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동일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토템의 대상이 식물과 무생물인 경우도 있다. 다만 그 대상은 개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종(種)이어야만 토템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부족이나 사회 전체가 그 대상을 숭배하여 신격화시키는 것이 토템신앙인 것이다(프로이트, 『토템과 금기』, 150-160).

우나푸와 익스발랑케가 자신들의 상징으로 옥수수를 지목했다는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옥수수는 우나푸와 익스발랑케의 토템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나푸와 익스발랑케가 자신들의 운명과 옥수수의 운명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옥수수는 익스무카네에 의하여 우나푸

와 익스발랑케 가문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옥수수가 토템이기 때문에 동일시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다.⁴⁾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옥수수의 일체화는 『포폴 부』에서 옥수수인간 창조에서 절정을 이룬다. “창조자들은 그것(옥수수)이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이라고 결정하여, 그 음식으로 그의 살과 피를 만들었다”(“Los Creadores decidieron que aquella era la comida más apropiada para el hombre y de aquel alimento hicieron su carne y asimismo su sangre”, 『포폴 부』, 134)라고 적고 있다. 스미드(W. Robertson Smith)에 따르면 토템종교에서는 토템을 정기적으로 잡아먹는 것이 중요한 의식이었다고 한다. 이는 같은 씨족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자기들과 신의 유사성을 상기하고 확인하는 의식이었다(재인용, 프로이트, 203). 중앙아메리칸인들이 매일 먹는 옥수수로 인간이 빚어졌는데, 이 옥수수가 토템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신성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더구나 옥수수는 단순한 신성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 절대자를 재현하는 우주의 축과 세계목이다. 결국 옥수수를 먹는다는 행위는 절대자를 내면화하여 육화시키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 옥수수, 인간 사이의 위계를 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인간들은 옥수수를 먹음으로써 매일 스스로 절대자가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
- 4) 우나푸, 익스발랑케와 옥수수 사이의 동일시에 대해서는, 올메카 문화에서 비롯되어 특히 마야시대에 널리 퍼져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나왈(nahual) 신앙과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나왈신앙은 인간과 동물을 결합시키는데, 한 인간의 삶이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alter ego) 어떤 동물의 운명과 결합되어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 신앙의 대상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신 또한 영혼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도 그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는 신앙이다. 중미지역에서의 자가나 뱀을 숭상하는 신앙이 바로 나왈신앙의 대표적 예이며(다니엘 꼬시오 비에가스, 『멕시코의 어제와 오늘』, 33), 나왈신앙의 대상으로는 식물도 가능하다(Rafael Girard, 154). 따라서 이 역시 일종의 토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나왈신앙에서는 나왈의 대상이 반드시 종족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 차원의 것일 수도 있다.

4. 결론

『포폴 부』에서는 이 밖에도 인간세상에 불을 퍼뜨릴 때 옥수수이삭에 불을 붙였다는 언급이 있다. ‘우리 집의 중심’, 옥수수인간의 창조 등의 일화들과 더불어 옥수수의 중요성을 쉽사리 깨닫게 해주는 진술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각각의 의미론적 분석에만 집착한다면 『포폴 부』에서의 옥수수의 진정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옥수수의 의미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표상에 떠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 인간들의 보편적 염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절대자 찾기’의 과정에 옥수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절대자에 이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때로는 옥수수 자체가 절대자를 재현하는 상징성을 띠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우주의 축, 세계목, 육화라는 원형들이 옥수수의 상징성에 수렴된다.

우주의 축은 자신들이 사는 곳이 코스모스이기를 바라는 마음, 즉 태초의 신성함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항상 거하기를 바라는 절대자를 향한 염원에서 비롯된 원형이다. 우나푸와 익스발랑케가 지하세계 평정을 마쳐갈 무렵, 익스무카네는 이들의 분신인 옥수수가 마치 영원한 생명을 지니기라도 한 양 부활을 거듭하자 옥수수를 ‘우리 집의 중심’이라 부르며 경배한다. 이는 옥수수가 태초의 신성함을 재현할 수 있는 우주의 축으로 선언되었음을 의미한다. 익스키 그리고 우나푸와 익스발랑케는 옥수수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이는 옥수수가 우주의 축이 되리라는 것을 예시해준다. 태초의 순간을 재현하는 우주의 축으로서의 옥수수는 당연히 선험적으로 정당성을 띤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세계목의 원형으로서의 옥수수의 이미지는 분리가 일어나기 이전 상태인 근원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다. 떨어진 근원에 다시 가까워지려는 것 역시 절대자를 찾는 인간들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포폴 부』에서는 분리의 모티프가 단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등의 물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었다. 인간창조에 실패를 거듭하여 절대자의 뜻을 받들고 숭배를 드릴

피조물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안,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세계까지도 사악하고 오만한 무리들에 의하여 어지러워진다. 우나푸와 익스탈랑케가 지하세계를 평정하고 하늘에 올라 태양과 달의 신이 되는 영웅서사시적 구도는 하늘-땅-지하를 잇는 분리되지 않은 근원의 합일 상태를 구현해 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분신인 옥수수는 하늘-땅-지하를 잇는 세계목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뿌리를 지하에 두고 하늘로 향하는 옥수수 자체가 이미 근원에서의 합일을 지향하는 세계목으로서의 의지를 두 영웅의 모험을 통해 발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포폴 부』의 창조주들은 인간들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이기 때문에 옥수수로 인간을 만든다. 그런데 옥수수는 익스무카네에 의해 경배 받는 신성을 갖춘 존재로 신격화된다. 옥수수가 인간들과 동일시되면서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토tem신앙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옥수수는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일상의 양식이다. 토tem의 측면에서 보면 토tem을 먹는다는 행위는 인간-식물-신의 합일을 염원하는 것이니 이 염원이 매일 실현되는 셈이다. 게다가 우주의 축과 세계목인 옥수수를 먹는 행위는 절대자를 몸속에 재현시키는 것이다.

보론: 『포폴 부』를 통해 본 농경과 옥수수

톨테카 문명의 민족적 영웅이자 위대한 신이었으며, 아즈텍인들에게도 숭상의 대상이었던 케찰코아틀(Quetzalcóatl)은 지하세계로 여행하여 늙은 신에게 옥수수를 훔쳐와 인간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한다(다니엘 꼬시오 비에가스, 24-5). 농경의 시작, 케찰코아틀과 농경, 그리고 옥수수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신화이다. 케찰코아틀은 ‘깃털 달린 뱀’을 뜻하는데, 사실은 마야 이전부터 전 중앙아메리카에서 숭상받았다. 마야인들은 주로 쿠쿨칸(Kukulcán)이라고 불렀다. 『포폴 부』에는 구쿠마츠(Gucumatz)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키체족들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옥수수를 정복함으로써 문화적 영웅으로서 혹은 신으로 숭상 받게 되는

공통점을 지닌다(Luis Cardoza y Aragón, 122).⁵⁾

『포폴 부』에는 중앙아메리카에 널리 퍼져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모든 신화가 그렇듯이 『포폴 부』 역시 특수한 시대적·역사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서 그 내용 속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채집경제에서 옥수수 농경을 통해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중앙아메리카인들의 기나긴 세월과 과정이 상징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다.⁶⁾ 이 과정을 따라 농경발전과 옥수수의 연관점들을 살펴보면 『포폴 부』에서 옥수수가 차지

5) 뱀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숭상되었다. 서구에서도 기독교가 이브와 연관시켜 단죄하기 전에는 승배의 대상이었다. 뱀의 꼬리가 원형(圓形)의 이미지, 즉 영겁과 완벽함을 상징하는 원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허물을 벗을 때마다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이미지를 주며, 또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의 형상은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대자연의 순환적 섭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중앙아메리카의 수많은 건축물과 조각, 그림에 자취를 남긴 깃털 달린 뱀은 여기에 또 다른 신성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땅을 기어다니는 뱀은 대지와 동일시되고 깃털은 영적인 비상(飛上)을 상징하여 하늘과 대지가 결합한 형국이다. 깃털달린 뱀은 또한 달력과도 관계가 있다. 마야의 달력은 금성의 탄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바로 이 금성이 깃털 달린 뱀과 동일시된다(그레이엄 헨콕, 『신의 지문: 사라진 문명을 찾아서』, 上, 207). 달력은 농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니, 깃털 달린 뱀도 농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케찰코아틀이 옥수수를 구해와 인간세계에 퍼뜨렸다는 신화가 필연적으로 탄생할 요건들이 존재했었던 셈이다. 그래서인지 깃털 달린 뱀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민속영웅이나 문화영웅 이상의 존재에까지 이르게 된다. 톨테카가 멕시코 중부 고원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가 유카탄 반도 쪽으로 밀려나기 이전의 10세기 중반까지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은 당시의 수준 높고 평화스러웠던 종교의 목표와 의도가 상징적으로 인격화되었던 존재였다(에이드리언 G. 길버트/모리스 M. 코트렌, 『마야의 예언』, 28-9). 톨테카인들을 몰아내고 위칠로포치틀리(Huitzilopochtli)를 주신으로 삼았던 아즈텍인들이지만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는 케찰코아틀에 대한 외경심은 높아만 갔다. 스페인군의 침입시 아즈텍의 황제 모테수마는 이들이 하얀 얼굴에 턱수염이 더부룩하다는 전설 속의 케찰코아틀의 모습을 한 것에 기겁하여 적절한 방어책을 수립하지 못하여 스페인인들의 ‘손쉬운’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6)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후에 전개될 논지를 발췌한 Rafael Girard의 *Esoterismo del Popol Vuh*와 Dora Luz Cobián의 “El papel de la mujer en la historia Maya-Quiché, según el *Popol Vuh*”를 참조하기 바람.

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포폴 부』는 채집경제 시대, 원예재배 시대, 초기 농경시대, 농경시대의 네 개의 발전 단계를 포괄하고 있다(Dora Luz Cobián, 83). 옥수수에 대한 언급은 주로 초기 농경시대에서 농경시대로의 이행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전의 두 시대에서 옥수수가 어떤 위상을 점했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들이 있다. 총 4부로 구성된 『포폴 부』의 제 1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다. 거듭되는 실패 후에, 창조주들이 세번째 피조물인 나무인간을⁷⁾ 만들 때 익스피야콥과 익스무카네에게 자문을 구하러 간다. 『포폴 부』에서 최초로 옥수수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때 창조주들이 옥수와 콩으로 점을 쳐보라는 조언을 듣고 행하자, 옥수와 콩은 나무인간이 성공하리라고 예언한다. 1부의 또다른 곳에서는, 태양이 생겨나기 전 태양신을 자처하던 오만방자한 부릅 카키스 이야기에 옥수수가 등장한다. 신들이 보낸 노부부가 그의 썩은 이빨을 치료하는 척 하면서 옥수수 이를 박아 넣었고, 옥수수 이빨은 부릅 카키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이로 인해 부릅 카키스는 결국엔 신들에게 제압당한다. 두 일화는 모두 옥수수의 주술성을 말해주고 있다. 미래를 예언하는 기능, 그리고 정신적 병-여기서는 부릅 카키스의 자만심-을 치유하여 악을 경계하는 주술적 역할이다. 그러나 이 두 일화에서는 옥수수의 비중이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첫번째 이야기에서는 아직 옥수수는 콩과 대등한 대접을 받고 있을 뿐이다. 옥수수의 예언과는 달리 나무인간 창조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고, 부릅 카키스처럼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이를 옥수수를 통해 경계했지만 지상과 지하세계에는 부릅 카키스와 유사한 무리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 모든 점들은 아직 옥수수 농경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수수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신화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7) 『포폴 부』에서는 오늘날의 인간은 신들이 창조한 네번째 생명체라고 적고 있다. 첫번째는 동물들, 두번째로는 진흙을 빚어 인간을, 세번째로 나무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모두 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였다.

제 2부에는 본문에서 살펴본 옥수수의 신격화 과정이 들어 있다. 옥수수 중심의 농경이 정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익스키이 며느리로 익스무카네에게 인정받는 이야기 속에 옥수수밭의 존재가 처음으로 가시화된다. 그러나 익스키이 옥수수밭으로 향할 때는 아직 별다른 농기구 없이 그물만을 가지고 간다. 밭에는 그나마 옥수수가 별로 없어서 초자연적인 도움을 하늘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텍스트에는 이 옥수수밭이 우나푸와 익스발랑케의 형제인 운바츠와 운초웨의 소유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공놀이나 피리 연주 등에 주로 골몰할 뿐 밭을 정성스레 관리하지도 않고, 옥수수도 별로 없는 상황으로 미루어 거의 야생이나 마찬가지로 옥수수밭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복형제들을 원숭이로 만들고 옥수수밭을 맡겼다고 선언한 우나푸와 익스발랑케의 경우에도 몸소 밭에서 노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옥수수밭에 나갈 때 여러 가지 농기구를 가지고 가서, 이들에게 마술로 일을 시킨다. 익스키 이야기에서 아직 초기 농경단계의 징후를 읽을 수 있다면, 우나푸와 익스발랑케 이야기는 농기구의 등장으로 보아 좀더 발전한 농경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징후로는 익스무카네의 위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포폴 부』 1부의 익스무카네는 절대자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즉, 신성을 지닌 존재였다. 이후 익스무카네의 지위는 점점 인간과 가까워지지만, 그녀는 한참동안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등장한다. 익스키이 찾아오고 우나푸와 익스발랑케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익스무카네는 집안을 다스리는 가정의 역할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우나푸와 익스발랑케가 자신들이 옥수수밭에 나가 익스무카네를 봉양하겠다고 선언한 후에는, 그녀에게 밭으로 점심을 가져다 달라고 명령한다. 익스무카네의 지위가 가정에서 손자들의 심부름꾼쯤으로 격하된 것이다. 익스무카네는 3부에서 창조주들과 함께 옥수수인간 창조에 관여한다. 언뜻 보아서는 익스무카네의 지위가 다시 격상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익스무카네는 1부에서처럼 창조주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하얀 옥수수와 노란 옥수수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한 창조주들이 익스무카네에게 옥수수를 갈아 음료수를 만드는 일을 시키는 것으로 미루어 가사를 묵묵히 수행하는 여성의 상징으로 화하여 다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위상의 변화는 익스무카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포폴 부』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지위 변화와도 상응한다. 익스무카네는 신성을 지닌 존재였던 적도 있었지만, 익스킵의 경우는 처음부터 신이라기보다는 반인반신에 가깝고, 『포폴 부』 제 3부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평범한 여성으로, 그리고 일과 출산을 위한 도구적 여성 혹은 상업적 대상이나 소유의 대상으로 점점 격하되어 간다. 익스무카네의 경우 그녀의 역할이 돋보이는 반면 남편으로 같이 등장하는 익스피야콥(Ixpiyacoc)의 존재는 희미했다. 그러나 후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앞의 글, 73-5).

이런 여성상의 일련의 변화는 농경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 세계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대지의 생산력에 대한 경이에서 비롯된 대지모신(大地母神, Terra Mater), 즉 여신 숭배는 신석기 시대까지 전성기를 누린다. 구석기 시대처럼 잡혼이 행해졌던 시대에는 누가 아버지인가를 잘 몰라서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까지도 어머니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또 채집경제 시대에는 남성들의 사냥은 그다지 높은 칼로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여, 여성들이 채집하는 식량이 영양섭취의 80%를 차지하였다(새리 엘 서러, 『어머니의 신화』, 32-6). 당연히 여성은 오늘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였다.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어 농경은 식물과 동물의 생리학적 리듬과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변화 사이의 유사성을 알게 해주었다. 인간의 존재도 여성의 주기적 변화에 따라 의미를 부여받는 셈이다(앞의 책, 44).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여성이 지금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⁸⁾ 그러나 농경의 발전은 점차 남성 노동력을 사냥과 약탈, 전쟁

8) 여성의 종속성과 열등성의 상대적 부재가 반드시 여성의 지배나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신의 숭배가 반드시 여성 지위의 우월성을 뜻하지는

에서 농토로 불러들이고, 여성은 가사에 종사하게 만든다.

『포폴 부』의 2부의 내용을 상기한다면 이런 과정이 익스무카네와 우나푸, 익스발랑케 사이에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나푸와 익스발랑케가 자신들이 옥수수밭을 맡겠다고 선언하고 익스무카네로 하여금 음식을 밭으로 날라오라는 명령을 한 시점에 여성 지위의 격하가 확연히 드러난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 분화가 일어나, 남성이 한층 중요한 일인 옥수수 농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우나푸와 익스발랑케는 밤중에 옥수수밭을 망치는 짐승들을 물리쳐야 했다. 말하자면 문명/야만의 대립구도라고 할 수 있는(Rafael Girard, 161)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우나푸와 익스발랑케가 인간세계에 문명의 빛을 던져준 문화적 영웅이 된다. 그리고 옥수수는 우나푸와 익스발랑케의 운명의 표식이 되었고, 익스무카네는 옥수수를 우러러 경배한다. 이 모두가 우나푸와 익스발랑케로 상징되는 발전된 농경단계의 출발점에서 일어났다.⁹⁾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옥수수는 비록 단편적으로 『포폴 부』에 언급되고 있으면서도 마야-키체족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경 발전단계, 옥수수 농경의 정착과정, 이 와중에서 일어난 사회적 권력 이동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그만큼 마야-키체족의 삶과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가 신석기 시대까지 오늘날의 지위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했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앞의 책, 57).

- 9) 익스발랑케는 여성신이라는 견해가 있다. 어원이 ‘암표범’(‘tigresa’)을 뜻하는 데다가, 보편적으로 여성신으로 간주되는 달의 신이 되기 때문이다(Dora Luz Cobián, 79). 그렇지만 우나푸는 태양신이 된다. 태양은 달과는 달리 이지러지지 않는 불변성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달보다는 높은 지위의 신성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익스발랑케에 대한 우나푸의 우월함을 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다. 게다가 익스무카네가 발전된 농경 이전의 세 단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다가 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주곡물이 되어 왕성한 노동력이 필요한 시점에 그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이, 여성의 지위 약화와 남성 노동력으로서의 대체를 강하게 암시한다고 본다.

역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바로 이 점이 『포폴 부』에서 차지하는 옥수수의 중요성이 표상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심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이 글에서 던져본 또다른 이유이다.

참고문헌

- Popol Vuh*, Barcelona, Ediciones Aura, 1986.
- Braudel, Fernand,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일상생활의 구조』 上(주 경철 譯), 까치, 1995.
- Campbell, Joseph, 『신화의 힘』(이윤기 譯), 고려원, 1996.
- Cardoza y Aragón, Luis, *Guatemala: las líneas de su mano*, 2a reimpresión, México, D. 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3.
- Cosío Villegas, Daniel, 『멕시코의 어제와 오늘』(고혜선 譯),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 Díaz Rozzotto, Jaime, “El *Popol Vuh*: fuente estética del realismo mágico de Miguel Angel Asturias”, *Cuadernos americanos*, Año XXXIV, No.4, México, D. F., 1975, pp. 85-92.
- Eliade, M., 『성과 속: 종교의 본질』(이동하 譯), 학민사, 1997.
- Frye, Northrop, 『비평의 해부』(임철규 譯), 한길사, 1989.
- Girard, Rafael, *Esoterismo del Popol Vuh*, México, D. F., Stylo, 1948.
- Franch, José Alcina, *Arte precolombino*, Vol.I, Madrid, Alhambra, 1987.
- Freud, Sigmund, 『토텐과 금기』(김현조 譯), 경진사, 1996.
- Luz Cobián, Dora, “El papel de la mujer en la historia Maya-Quiché, según el *Popol Vuh*”, *Revista chilena de literatura*, No.47, Santiago, 1995, pp. 71-89.
- Ruz Lhuillier, Alberto, *La civilización de los antiguos mayas*, 3a ed, México, D. 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1(1957).
- S. Thompson, J. Eric, *Historia y religión de los mayas*, 9a ed.,

- México, D. F, Siglo XXI, 1991(1970).
- Thurer, Shari L., 『어머니의 신화』(박미경 譯), 까치, 1995.
- 그레이엄 헨콕, 「깃털 달린 뱀: 중앙아메리카」, 『신의 지문: 사라진 지문을 찾아서』(이경덕 譯) 上, 까치, 1997, pp. 125-223.
- 에드리언 G. 길버트/모리스 M. 코트렐, 『마야의 예언』(김진영 譯), 넥서스, 1996.
- 우덕룡, 「멕시코인의 식관습과 음식문화」(임영상外 『음식으로 본 서양문화』中), 대한교과서, 1997, pp. 285-303.
- 조동일, 「끼체」,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中, 문학과 지성사, 1997, pp. 431-441.
- 펠리페 페르난데스-아메스토, 『밀레니엄』 上, 한국경제신문사, 1997, pp. 269-327.